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청력상태 및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요구 조사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청각학과¹ · 세한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²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언어청각학부, 청각언어연구소³
황준호¹ · 신은영² · 김진숙³

ABSTRACT

A Study on Hearing Self-status and Aural Rehabilitation Program Needs of the Elderly who Attend Geriatric Welfare

Junho Hwang¹, Eun Yeong Shin², and Jinsook Kim³

¹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Graduate School,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²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Sehan University, Chonnam, Korea

³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Research Institute of Audiology and Speech Patholog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This study was aimed to promote social welfare and health services of the elderly people through understanding their hearing status and investigating the needs for geriatric welfare program for the hearing impaire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swered by 118 senior participants who were older than 60 and attending at the selected five welfare centers located in Seoul, Gyung-gi and Gang-won provinces. As a result, first, 55.1% answered that their physical condition is not satisfied and 89% reported they have one or more diseases. Out of those, 18.8% were suffering from hearing disorders, which is listed in the second most common disease following arthritis from which 19.2% were suffering. Second, due to hearing loss, 48.3%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daily life and 42.4% seeking professional help. The most difficult condition for them was to hear soft speeches and the most desirable service for help was hearing aid. Third, when the needs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re subdivided, the most desirable rehabilitation service was physical therapy (56.8%) and aural rehabilitation service was followed (34.8%). Besides, 82.2% were interested in evaluating their hearing ability regularly at welfare center. Fourth, the majority of geriatric welfare center users strongly showed their needs for hearing aid services, aural rehabilitation services after hearing aids fitting, aural rehabilitation services, instruction for hearing conservation, and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s stated below, the results can be concluded. Instruction of the hearing conservation for seniors who suffer from hearing loss should be activated. Moreover,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aural rehabilitation programs should be systematized to build various ability to cope with hearing loss because increase of the geriatric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elderly hearing impaired in the future.

Key words: Geriatric welfare center, Hearing status, Hearing conservation, Aural rehabilitation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30일

논문수정일: 201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8일

교신저자: 김진숙,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언어청각학부

Tel: (033)248-2213, Fax: (033)256-3420

E-mail: jskim@hallym.ac.kr

INTRODUCTION

1. 연구배경

노인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를 상회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6년에는 전체인구의 9.5%에 이르렀으며 2018년에는 14.3%로 유엔(UN)의 기준에 의하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수명도 지난 2005년 78.9세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83.1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구 및 보건의로 정책 등의 시급함을 지적한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특징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여러 가지 질병이 동시에 다발하는 경향과 질환에 따른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의 장애가 쉽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는 과거의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유성호, 2001). 우리나라 노인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건강문제 68.5%, 경제적인 어려움 57.9%,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18.1% 등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노인들은 노화와 함께 건강의 쇠퇴와 적응력 감소를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건강문제가 일차적 관심이자 걱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기순, 2008).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동반되는 인지적 능력의 상실, 가족 및 친구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감소, 직업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박영주 외, 2004) 결과적으로 노인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청각장애는 미국의 경우 가장 흔한 노년기 의사소통 장애로 노년층에 관절염과 고혈압과 더불어 세 번째로 널리 알려진 질병이다. 미국 노인 중 약 28만 명이 어느 정도의 청각 손실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80%는 치료 불가능

한 청각 손실이다. 실제 65세 이상의 인구 중 54%가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화과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대부분으로 청력 감퇴 과정은 20세 이후에 진행되나 55~65세 사이에 주로 고주파수 청력이 저하된다(George & John, 2005).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청각장애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그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66.6%로 약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50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비율이 82.6%로 노인의 청각장애가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청각장애를 가진 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9)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70만 명의 노인성 난청 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최종욱, 2005). 현대 노인들은 의식이 개화되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높아져가며 그러한 서비스를 가족의 도움보다는 노인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기를 원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청력 상태를 평가하고 청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해줄 수 있는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욕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건강과 심리, 복지 및 사회, 경제적 상황, 보건의로 서비스 정도를 파악 한다.

둘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청력 상태를 파악한다.

셋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재활치료 서비스의 욕구 실태를 조사한다.

넷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청능재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 욕구와 관련된 변인을 확인한다.

3. 이론적 배경

1) 청각장애 노인 복지 실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청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천명 당 6.42건이며, 이를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재가청각장애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60대 이후 노인의 출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 인구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수경, 2004).

청각장애 노인 실태조사(청음회관, 2009)결과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의 청각장애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사대상자 58%의 청각장애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만 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가 33.4%, '31만원~50만원'이 23.2%인 것에 비하여 '100만원'을 넘는 경우는 8.3%에 불과하였다. 생활비 마련 방법은 '자녀도움'이 27.6%로 가장 많았고, '정부지원금'이 22.6%로 자녀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많이 느낀다' 또는 '매우 많이 느낀다'고 답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건강문제이고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의료비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각장애 노인 실태조사(청음회관, 2009)에 의하면 청각장애 노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선택한 경우가 70.9%로 나타났고, '질병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74.5%나 되었으며, 현재 갖고 있는 질병들을 보면, 고혈압·저혈압(43.9%)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이나 개인병원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이용 빈도는 2~3개월에 1~2회 정도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청각장애 노인들은 고혈압·저혈압이나 관절염 등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질병도 앓고 있어 의

료비 부담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각장애 노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나 (26.2%) 가까운 친구 또는 친척과 상의하는 방법 등 (10.2%)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상담하는 경우는 8.9%에 불과하였고, 혼자 고민한다고 답한 경우도 16.0%로 나타났다. 또한 어려울 때 도움 받는 사람으로 자녀나 며느리가 42.5%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음회관, 2004). 따라서 현재 청각장애노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정부나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공적 자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제도적인 복지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청각장애 노인의 기관이용실태

기관 이용에 관련된 실태 조사에서 청각장애 노인들은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9.6%, 노인정은 4.1%에 불과한 반면, 종교단체는 26.9%, 청각장애인 복지관은 21.2%, 청각장애 관련 단체에는 26.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음회관, 2004). 그러므로 현재 지역사회에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노인들은 이러한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감각기관의 노화로 청각장애의 출현율이 높아지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건강상태도 대체적으로 좋지 않아 야기되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청능재활 서비스를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한다면 늘어나는 청각장애노인 인구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주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주 동안 서울·경기·강원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연락하여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다섯 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하였다. 조사 일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청력선별검사와 설문지에 대한 훈련을 받은 석사과정 대학원 학생 2명이 직접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일대일 대면 방식으로 설문항목과 답변내용을 읽어주고 응답을 적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자의적 연구 참여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Appendix 참조). 이때 중도포기를 원할 경우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미리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5~7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134명이었다. 이 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적절치 않았던 16명을 제외한 118명을 대상으로 결과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노인들의 청력상태와 청능재활 서비스프로그램 조사 목적을 위하여 지역노인조사연구 중 마포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욕구조사(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1999), 성북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욕구조사(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1999), 일산지역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욕구조사(일산노인종합복지관, 2000)를 기초로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종욱, 2007)의 질문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일반적 사항, 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서비스, 듣기 능력 상태, 노인 복지 재활 치료 서비스 욕구 등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항목의 보청기센터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등 보청기 판매 목적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곳으로 난청센터는 검사와 보청기를 병합하여 난청에 대한 재활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 센터를 의미하며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경제 상황, 건강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이용 경험, 듣기 상태, 재활치료서비스 욕구 정도,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듣기 상태에 따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욕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건강수준

조사대상자 118명에 대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이 72.8%로 남성보다 2.7배 더 많았고, 가족 구성원은 독신이 34.7%였다. 생활비 조달 방법은 자녀 전담인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58.4%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평소 건강상태 설문에서 55.1%가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성 별	남 자	32(27.1)
	여 자	86(72.9)
연 령	60~69세	25(21.2)
	70~79세	66(55.9)
	80세 이상	27(22.9)
가족 구성원	독신	41(34.7)
	기타	77(65.3)
가족 구성원 수	독신	40(33.9)
	2명 이상	76(64.4)
	무응답	2(1.7)
생활비 조달 방법	근로수입	17(14.4)
	정부지원금	16(13.6)
	연금	20(16.9)
	자녀가 전담	46(39.0)
	기타	19(16.1)
경제적 어려움	다소 어려움	69(58.5)
	거의 느끼지 않음	48(40.7)
	무응답	1(0.8)
건강 상태	건강하지 않다	65(55.1)
	그저 그렇다	32(27.1)
	건강하다	21(17.8)
총 인 원	118(100.0)	

1)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질환

조사대상자 중 ‘어떠한 한 종류의 질병이라도 가진’ 경우는 89%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응답한 질병은 관절염(19.2%)이었고, 두 번째는 청각질환(18.8%), 세 번째는 고혈압·저혈압(1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청각질환은 일상생활에 두 번째로 큰 어려움을 주는 질병(16.9%)으로 나타났다.

2) 청각질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 총 118명 중 36명이 청각질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활동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 실질적 생활에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분노(화가 남)의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 활동의 어려움 정도에서 94.5%가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듣기 상태와 관련된 내용

1)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

본 조사 대상자 중 난청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61.9%로 나타났다. 또한 난청으로 인하여 가장 불편했던 상황은 작은 말소리(29.8%)이었고, 그 다음은 전화사용(27.9%) 상황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텔레비전 시청(23.1%), 라디오 청취(9.6%), 종교 모임 및 기타(1.0%) 상황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노인의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와 상황

구분	빈도(%)	
난청으로 인한 불편한 정도	전혀 없다	16(13.6)
	그렇지 않다	29(24.6)
	보통이다	16(13.6)
	그렇다	48(40.7)
	아주 그렇다	9(7.6)
계	118(100.0)	
난청으로 인한 불편 상황	전화사용	29(24.6)
	라디오 청취	10(8.5)
	텔레비전 시청	24(20.3)
	작은 말소리	31(26.3)
	친지와외의 모임	8(6.8)
	종교 모임	1(0.8)
	그 외	1(0.8)
무응답	14(11.9)	
계	118(100.0)	

2)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정도

조사 대상자 중 ‘잘 들리지 않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경우는 56.8%로 나타났고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은 보청기(43.3%)가 가장 많았다. 도움을 받고 싶은 기관은 병원(48.8%)과 노인복지관(26.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정도와 종류

구분	빈도(%)	
도움을 받고 싶은 정도	전혀 없다	16(13.6)
	그렇지 않다	35(29.7)
	보통이다	17(14.4)
	그렇다	44(37.3)
	아주 그렇다	6(5.1)
계	118(100.0)	
받고 싶은 도움의 종류	보청기	26(22.0)
	인공와우	2(1.7)
	수화교실	1(0.8)
	전화기 증폭기	10(8.5)
	TV 증폭기	18(15.3)
	구화 학습	1(0.8)
	그 외	2(1.7)
	무응답	58(49.2)
	계	118(100.0)
	도움 받고 싶은 기관	병원
노인복지관		12(10.2)
난청센터		8(6.8)
보청기센터		2(1.7)
시청 및 동사무소		1(0.8)
무응답	73(61.9)	
계	118(100.0)	

3) 양 귀 청력의 차이와 청력의 변화 정도

조사 대상자의 양 귀 청력 차이 유무는 ‘예’가 39%, ‘아니오’가 58.5%로 나타났고, 양 귀 청력 차이가 난다고 대답한 군에선 오른쪽의 청력 변화가 더 많았다는 군이 66%로 왼쪽의 청력 변화가 더 많았다고 답한 34%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청력의 변화 정도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52.5%, ‘변화가 있는’ 경우가 57.5%로 나타났다.

4)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

조사 대상자 중 ‘난청으로 우울증상을 경험한’ 경우는 28%,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68.6%로 조사되어 난청으로 인한 우울증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최근 2주 동안 이명 유무와 발생 시기

조사 대상자 중 최근 2주간 이명을 느낀 경우는 39%가 '예'라고 답하였고, 이명의 종류는 모기소리(32.6%)가 가장 많았다. 이명의 발생 시기는 60대 이전, 60대(40.0%), 70대(45.0%), 80대와 그 이후(15.0%)로 조사되어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보청기 사용 유무와 도움 정도

조사대상자의 90.7%는 보청기 사용 경험이 없었으며, 6.8%만이 보청기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5.7%는 '도움이 된다' 14.3%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재활 치료 서비스 욕구

1)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활서비스

조사대상자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활서비스는 56.8%가 '물리치료 서비스'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8%가 '청능재활 서비스'로 두 번째로 높은 욕구를 나타내었다. 그 외에 '미술, 음악치료 서비스 및 기타'(5.2%), '작업치료 서비스'(1.9%), '언어치료 서비스'(1.3%)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본 질문은 재활치료서비스에 폭넓은 응답을 얻고자 다중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대상 총 118명 중 한 개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선택한 경우가 67명, 두 개를 선택한 경우가 35명, 세 개를 선택한 경우가 6명이었고 무응답이 10명이었다.

Table 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활서비스

구분		빈도(%)
필요한 재활 치료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88(56.8)
	청능재활 서비스	54(34.8)
	언어치료 서비스	2(1.3)
	작업치료 서비스	3(1.9)
	미술, 음악치료 서비스 및 기타	8(5.2)
	계	155(100.0)

2) 노인복지관에서의 재활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대상자 중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재활치

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는 87.3% '만족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0.2%로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물리치료서비스(50.0%)와 청능재활 서비스(41.7%) 부분이 취약하다고 답하였고, 그 외 미술, 음악치료 및 기타(8.3%)로 조사되었다.

3) 청력의 자가 확인과 청력 검사 유무 및 노인 복지관에서 청력 검사 이용 의향

조사대상자 중 청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말소리(예: /춤/, /뒤/, /신/, /쉬/ 등)가 들리지 않는지 검사하거나 확인 경험은 82.2%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 본 경험은 '있는' 경우가 34.7%, '없는' 경우가 64.4%로 많은 노인들이 청력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 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노인복지관에서 청력 검사를 제공 시 받고 싶은 의향은 82.2%로 대부분 청력 검사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Table 5. 자가 확인과 청력 검사 유무 및 노인복지관에서 청력 검사 의향

구분		빈도(%)
자가확인 유무	있다	21(17.8)
	없다	97(82.2)
	계	118(100.0)
청력검사 유무	있다	41(34.7)
	없다	76(64.4)
	무응답	1(0.8)
계	118(100.0)	
복지관에서 청력 검사 의향	사용한다	97(82.2)
	사용하지 않는다	20(16.9)
	무응답	1(0.8)
	계	118(100.0)

4)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 정도

조사 대상자 중 보청기 서비스는 '받고 싶은' 경우가 83.9%이었으며,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15.3%로 청능재활 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가

Table 6.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

구분	보청기 서비스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전체적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청력보존 방법에 대한 교육		청력보존 프로그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	전혀 없다	6	5.1	5	4.2	3	2.5	3	2.5	2	1.7
	받을 의향이 없다	12	10.2	13	11.0	9	7.6	4	3.4	5	4.2
	고려한다	22	18.6	18	15.3	13	11.0	18	15.3	19	16.1
	받고 싶다	58	49.2	54	45.8	68	57.6	67	56.8	65	55.1
	반드시 받고 싶다	19	16.1	27	22.9	24	20.3	26	22.0	27	22.9
	무응답	1	0.8	1	0.8	1	0.8	0	0.0	0	0.0
계	118	100.0	118	100.0	118	100.0	118	100.0	118	100.0	

84%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15.2%로 나타났다.

청능재활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가 88.9%이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10.1%로 나타났으며, 주기적인 청력 검사와 청력보존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94.1%이었으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5.9%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청능재활 서비스와 청력 보존 방법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도 ‘반드시 받고 싶은’ 경우 94.1%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경우가 5.8%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Table 6).

4.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와 관련 요인

1) 청능재활 서비스프로그램 욕구에 작용 요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생활비 조달 방법으로 특히 자녀가 생활비를 전담하는 경우에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청력 검사 유무에 따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보청기 서비스, 전체적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청력보존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서 청력 검사 경험이 있는 경우 청능재활 서비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 가족 구성원,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태, 귀간 차이, 이명 유무에 따른 청능재활 프로그램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Table 8).

Table 7. 생활비 조달 방법에 따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생활비 조달 방법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이용 의향	자녀전담	45	4.02	.839	-2.591	.011*
	기타	72	3.64	1.162		

* $p < .05$.

Table 8. 청력 검사 유무에 따른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 분	청력검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p-value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41	4.08	.859	2,929	.004*
	없다	76	3.53	1.125		
보청기 서비스 이용 의향	있다	41	3.85	1.001	1,796	.075
	없다	76	3.49	1.052		
청능재활 서비스	있다	41	4.18	.747	2,725	.007*
	없다	76	3.70	.966		
청력 보존 방법	있다	41	4.20	.715	2,565	.012*
	없다	76	3.78	.903		
청력 보존 프로그램	있다	41	4.22	.725	2,773	.006*
	없다	76	3.78	.873		

* $p < .05$.

2) 청력의 자가 상태에 따른 상관관계

본 조사에서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의향은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보청기 서비스 이용 의향은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의 변화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의향은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청력 보존 방법 이용 의향은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서 상관성을 보였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이용 의향과 청력 자가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에서 상관성을 보였다(Table 9).

Table 9. 청력상태와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욕구 수준

구 분	난청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 정도	난청의 변화 정도	난청으로 인한 우울 정도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이용 의향	.282**	.356**	.168	.394**
보청기 서비스 이용 의향	.326**	.378**	.213*	.429**
청능재활 서비스 이용 의향	.210*	.239**	.157	.227*
청력 보존방법 이용 의향	.246**	.285**	.133	.215*
청력 보존 프로그램 이용 의향	.209*	.283**	.104	.207*

* $p < .05$, ** $p < .01$.

DISCUSSIONS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의료비 문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청각장애 노인 실태조사(청음회관, 2009)에 의하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경우가 21.4%로 5명 중 1명이었고, '질병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74.5%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에서 55.1%가 '건강하지 않다'로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었고, 89%가 '질병이 있다'고 답하면서, 선행 조사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청음회관, 2009). 또한 만성질환 중 노인성 난청(28.6%)은 미국의 경우 관절염(48.3%)과 고혈압(38%) 등과 더불어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NCHS, 1989) 본 조사에도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관절염(19.2%), 청각질환(18.8%), 고혈압, 저혈압(17.1%) 순으로 나타나면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두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질환으로 청각질환(16.9%)을 선택한 점을 함께 추측해보면, 노인들이 청각질환 등의 난청으로 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 총 118명 중 36명이 청각질환이 삶의 만족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강창욱 & 이준우(2006)에 의하면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생활 만족도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낮다고 한 점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청각질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난청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낀 정도가 48.3%로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최근 2주간 이명을 느낀 노인들의 비율 역시 39%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Leske(1981)은 55~79세 노인을 대상으로 이명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41.1%로 나타났으며, Rosenhall & Karlsson(1991)이 7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명을 조사한 결과 27.6%가 귀에서 별레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가 외국의 사례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난청과 이명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낀 노인들이 많고, 청력 검사 경험도 없는 반면 청력 검사 제공시 받을 의향은 82.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의 청력 검사 등 재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물리치료서비스(56.8%)와 청능재활 서비스(34.8%)로 나타났고, 그 외 미술 치료 및 기타 서비스(5.2%), 작업치료서비스(1.9%), 언어치료서비스(1.3%)는 상대적으로 욕구 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 의하면 만 17세 이하의 장애·청소년의 재활치료 서비스 여부는 언어치료(37.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치료(24.4%), 미술치료(22.6%), 음악치료(19.6%), 작업치료(19.2%), 그리고 놀이치료(18.1%), 심리·행동치료(12.1%)순으로 나타났고, 물리치료(11.2%)는 가장 적게 받는 서비스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질병의 선천성과 그에 따른 조기 중재, 그리고 재미있는 치료 적용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의 경우는 다소 후천성이 많은 만성질환으로 관절염과, 고혈압, 난청이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의 노인복지관들이 노인의 재활 욕구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서비스에 '아주 잘 제공되고 있다'에 20.3%가 답하였고, '잘 제공되고 있다'가 47.5%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노인들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물리치료서비스(56.8%), 청능재활 서비스(34.8%)가 나타난 점을 보면 여전히 그러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노인의 욕구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노인의 재활치료 서비스 욕구에 맞추어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는 물리치료 서비스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청능재활 서비스는 노인들의 욕구를 거의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오혜경(2009)에 의하면 재활치료 서비스는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

애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합적 서비스이며, 특히 외국의 경우 재활치료 서비스가 언어, 음악, 미술, 놀이, 행동, 예술, 청능, 재활승마 등 전문성이 인정되며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노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가 중요한 현 시점에 다양하며 전문화된 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실시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의 청능재활 프로그램 욕구 정도를 보면 청력검사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34.7%인 반면 노인복지관에서 청력 검사 제공시 받을 의향이 82.2%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보청기 사용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 6.8%인 반면 보청기 서비스 필요군(반드시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고려한다)은 83.9%,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 서비스 필요군은 84%로 청능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정학(1996)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자가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장애인 실태조사(2008)에 의하면 청각장애이용 보조기구에 있어서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73.3%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보청기 필요성과 청능재활이 필요한 반면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청각 검사와 재활 서비스의 혜택이 매우 부족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노인복지관에 보청기, 청력검사 등 체계화된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S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암시하고 이는 곧 청각장애 노인인구의 증가와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로 고통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청각 보존 방법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각 장애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 정책이 노인요양보험제도과 같이 정책 추진과정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리치료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생활의 불편을 주고 본 조사를 통해 수요도가 높은 서비스로

지목된 청능재활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충분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노인복지관의 내실을 다지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노인 스스로 가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점(이종욱, 2007)을 고려할 때 노인의 청각장애는 노년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 요소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청능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노인복지관의 활용성을 높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깊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노인복지센터, 청능재활 서비스프로그램, 청력상태, 청력보존관리, 고령화, 청각장애

REFERENCES

- 강창욱 & 이준우. (2006).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15(2), 82-85.
- 박수경. (2004). 고령사회에서의 청각(장애) 어르신 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음회관.
- 박영주, 정혜경, 안옥희, & 신행우. (2004).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행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6(1), 91-98.
- 서기순. (2008). 노인건강행위와 관련요인간의 관계. *한국노년학회지*, 28(4), 1201-1212.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1999). 마포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욕구조사.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1999). 성북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욕구조사.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000). 일산지역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욕구조사. 일산노인종합복지관.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 문현상. (1998).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혜경.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유성호. (2001). 노인복지관 발전 방향 탐구.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이용빈도와 이용기간에 따른 분

- 석. 춘계학술대회 자유논문 5-2분과.
- 이정학. (1996). 노인성 난청의 보청기 효과. *한국노년학회지*, 16(2), 151-161.
- 이종욱. (2007).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청음회관 실태조사. (2004). 청각장애어르신 복지실태 및 기초욕구 조사 연구. 청음회관.
- 청음회관의 청각장애 노인 실태조사. (2009). 청각장애노인 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 연구. 청음회관.
- 통계청. (2006). 2006 고령자 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kr.
- 통계청. (2009). 2009 고령자 통계. 국가통계포털. kosis.kr.
- 최종욱. (2005). 노인성 이비인후과 질환의 특성과 치료. *대한의협회지*, 48(3), 210-2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George, A. G. & John, H. M. (2005). Presbycusis. *Lancet*, 366, 1111-1120.
- Leske, M. C. (1981). Prevalence estimates of communicative disorders in the U.S. language, hearing and vestibular disord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23(3), 229-237.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1987). Current estimates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United Statistics. series 10. Public health service.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osenhall, U. & Karlsson, A. K. (1991). Tinnitus in old age. *Scandinavian Audiology*, 20, 165-171.

3번(ㄷ)에서 일상생활에 세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질환을_____이라고 답하셨습니다.

↓ ㄷ에 일상생활에 세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질환에 답한 경우만 응답
ㄷ-1. 상기 질환으로 인해 대외적인 사회활동(모임, 가족관계, 종교활동, 강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ㄷ-2. 상기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을 이상한 눈(예, 바보 혹은 장애인처럼)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ㄷ-3. 상기 질환으로 인해 의식주 관련된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ㄷ-4. 상기 질환 때문에 어르신께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3번(ㄹ)에서 일상생활에 네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질환을_____이라고 답하셨습니다.

↓ ㄹ에 일상생활에 네 번째로 어려움을 주는 질환에 답한 경우만 응답
ㄹ-1. 상기 질환으로 인해 대외적인 사회활동(모임, 가족관계, 종교활동, 강의)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ㄹ-2. 상기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을 이상한 눈(예, 바보 혹은 장애인처럼)으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ㄹ-3. 상기 질환으로 인해 의식주 관련된 실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ㄹ-4. 상기 질환 때문에 어르신께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①_매우 많다 ②_종종 있다 ③_약간 있다 ④_전혀 없다

5. 위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표시해주시시오.

이용기관	①_없다 ②_동네의원 ③_병원 ④_보건소 ⑤_한의원 ⑥_복지관무료병원 ⑦_기타
이용정도	①_전혀 이용 안 한다 ②_대략 2-3개월에 1회~2회 정도 ③_대략 1개월에 1회~2회 정도 ④_주 1~2회 정도 ⑤_매일 이용

◎ 다음은 듣기 능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6. 어르신이 일상생활 하는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 ①_전혀 없다 ②_그렇지 않다 ③_보통이다 ④_그렇다 ⑤_아주 그렇다

↓ ‘그렇다, 아주그렇다’에 V(체크)한 경우만 응답
6-1.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할 때가 어느 때인지 다음 중에서 고르세요. (1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①_전화사용 ②_라디오 청취 ③_텔레비전 시청 ④_작은 말소리 ⑤_친지와외의 모임 ⑥_종교모임(절·교회 혹은 성당) ⑦_그 외: ()

7. 잘 들리지 않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_ 전혀 없다 ②_ 그렇지 않다 ③_ 보통이다 ④_ 그렇다 ⑤_ 아주 그렇다

↓ ‘그렇다, 아주그렇다’에 V(체크)한 경우만 응답
7-1. 잘 들리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1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①_보청기 ②_인공와우 ③_수화교실 ④_전화기 증폭기
⑤_TV증폭기 ⑥_구화 학습(입모양을 보며 대화하는 방법)
⑦_그 외: ()
7-2. 잘 들리지 않아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1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①_병원 ②_노인복지관(종합복지관) ③_난청센터
④_보청기 판매하는 곳 ⑤_시청 및 동사무소

8. 한 쪽 귀가 다른 쪽 귀보다 더 잘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만약 “예”라고 답하셨다면, 어느 쪽 귀가 더 잘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쪽, 왼쪽)

9. 들리지 않는 정도가 계속 악화되거나 변화가 있습니까?

- ①_ 변화가 없다 ②_ 변화가 없는 것 같다 ③_ 변화가 있는 것 같다
④_ 변화가 있다 ⑤_ 변화가 매우 많다

10. 난청으로 인해 우울증상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_ 전혀 없다 ②_ 그렇지 않다 ③_ 보통이다 ④_ 가끔 그렇다 ⑤_ 항상 그렇다

11. 어르신 최근 2주 동안 귀에서 이명(소리울림)이 들리십니까? (예, 아니오)

↓ ‘예’에 V(체크)한 경우만 응답
11-1. 어르신은 이명(소리울림)이 발생한다면 어떤 종류입니까?
①_귀뚜라미 소리 ②_매미소리 ③_기차소리 ④_모기소리(윙소리)
⑤_바람소리 ⑥_맥박소리 ⑦_기타소리()
11-2. 어르신은 언제부터 이명이 발생했습니까?
①_ 59세 이전 ②_ 60세-64세 ③_ 65세-69세 ④_ 70세-74세
⑤_ 75세-79세 ⑥_ 80세-84세 ⑦_ 85세 이후

12.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 ‘예’에 V(체크)한 경우만 응답
12-1. 보청기가 들는데 도움이 됩니까?
①_ 도움이 전혀 안된다 ②_ 도움이 안된다 ③_ 보통이다 ④_ 도움이 된다 ⑤_ 아주 큰 도움이 된다

◎ 다음은 노인복지 재활치료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재활치료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어떤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 ①_ 물리치료서비스: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 서비스
- ②_ 청능재활서비스(청력 보존 프로그램): 청각 검사 및 보청기 상담/재활, 의사소통 기법, 구화, 입술 읽기 등을 도와주는 청능 치료 서비스
- ③_ 언어치료서비스: 언어 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개선시키거나 언어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함으로써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돕는 서비스
- ④_ 작업치료서비스: 동작과 작업등 일상생활의 활동을 통한 훈련 및 치료 서비스
- ⑤_ 미술, 음악치료서비스 및 기타: 시각 매체나 음악을 사용하여 인간 내면의 심상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무의식 속의 자가 치료 능력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14. 현재 노인 복지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욕구에 맞게 잘 제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 전혀 그렇지 않다 ②_ 그렇지 않다 ③_ 보통이다 ④_ 잘 제공되고 있다
 ⑤_ 아주 잘 제공되고 있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V(체크)한 경우만 응답

14-1. 노인 복지관에서 어떤 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_ 물리치료서비스 ②_ 청능재활서비스(청력보존프로그램) ③_ 언어치료서비스
 ④_ 작업치료서비스 ⑤_ 미술, 음악치료 및 기타

15. 청력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_ 있다 ②_ 없다

16. 복지관에서 청력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 ①_ 사용 한다 ②_ 사용하지 않는다

17. 보청기 착용 후 청능재활치료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능재활 서비스는 청각 검사 및 들리지 않는 말소리를 확인하고, 잘 듣는 방법을 배우며, 입술 읽기, 보청기 착용 후 전화사용, 그룹 내에서 대화하기, 텔레비전 듣기 방법, 의사소통기법 등의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복지관을 통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 ①_ 사용 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_ 사용 할 생각이 없다 ③_ 고려해 보겠다
 ④_ 사용하고 싶다 ⑤_ 반드시 사용하고 싶다

18. 보청기 서비스란 보청기 수리, 보청기 사용법 배우기, 보청기 조절, 착용 후 관리 법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지관에서 보청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_ 이용 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_ 이용 할 생각이 없다 ③_ 고려해 보겠다
 ④_ 이용하고 싶다 ⑤_ 반드시 이용하고 싶다

19. 청력이 좋지 않을 때, 어떤 말소리 (예: /쭈/, /뒤/, /신/, /쉬/ 등) 가 들리지 않는지 검사하거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_ 있다 ②_ 없다

20. 들리지 않는 말소리를 확인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청능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_ 이용 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_ 이용 할 생각이 없다 ③_ 고려해 보겠다
 ④_ 이용하고 싶다 ⑤_ 반드시 이용하고 싶다

21. 65세 이후 청력은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청력검사와 현재의 청력보존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이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_ 이용 할 생각이 전혀 없다 ②_ 이용 할 생각이 없다 ③_ 고려해 보겠다
 ④_ 이용하고 싶다 ⑤_ 반드시 이용하고 싶다

22. 청력은 65세 이후부터 급격히 나빠집니다. 한번 나빠진 청력은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청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청력보존프로그램'이라 합니다. 혹시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청력 보존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_ 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 ②_ 받을 의향이 없다 ③_ 고려해 보겠다
 ④_ 받고 싶다 ⑤_ 반드시 받고 싶다